

교회소식

- 대심방 중입니다. 부활절 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 지난 주일(3월 31일) 장로장립식을 통해 김동수 장로와 서영수 장로께서 세광교회 시무 장로로 세움을 입고, 담임목사와 함께 당회를 구성하였습니다.
- 제직회 공고: 5월5일(주) 친교 후 분당. 안건:재정 보고, 당회 결의사항 보고 및 각 부서 사역 계획 보고.
- 교육부: Princeton Volleyball Tournament for Youth Group
 - Date: 5/11 (Sat)
 - Location: Rockland State Park
 - Please come and spend time watching volleyball, cheering for the students, and enjoying a BBQ!
- No English Service on Ester Sunday
 - On Easter Sunday, there won't be a 10:00 service.
- 웨체스터 교회협의회 부활절 연합새벽기도
 - 일시: 4월21일(주일)오전 6시
 - 장소: 뉴욕백민교회 (2 Murray Hill Rd., Scarsdale, NY 10583)
 - 전화: 914-472-7090

섬기는 사람들

4월 안내: 이항복 집사
다음 주 대표기도: 서영수 장로(시 118:1-2; 19-29)
이번 주 친교: 황인선 사모, 김행란 집사
다음 주 친교: 김경화 집사, 이미경 집사

기도

“영혼이 잘 됨 같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심령에 들려 열매 맺는 말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직하고 담대하게 선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
 “범사에 강건하기를”: 교제와 양육이 풍성해지도록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거룩과 성령충만, 지혜와 은사, 강건함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예 배 안 내		주 일 학 교	
English Service	10am / Sanctuary	유치부	12pm / 유치부실
주일 예배	12pm / 본당	유년부	12pm / 유년부실
금요 기도회	8pm / 본당	중·고등부	12pm / 소예배실
토요 새벽기도	6am / 본당		

성경공부 및 모임

성경공부 (4월개강)	여성반	수 10am / 소회의실
	가족반	목 8pm / 대회의실
	남성반	토 7:30am / 소회의실
중·고등부 성경공부		금 8pm / 소예배실
새가족 모임		주일예배 후 목회자실
구역 모임		구역별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민영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교회 연락처

(914) 874-3606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Homepage: 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2019년 표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Behold, I am doing a new thing!)” (사 43:19)

English Service

<10am> Worship Leader: **Pastor Edwin Kim**
 Opening Praise -----“All who are thirsty” ----- Together
 *Call to Worship ----- Together
 *Worship & Praise ----- Together
 Confessional Prayer ----- Together
 Apostle’s Creed ----- Together
 Offering Prayer ----- Leader
 Word of God----- **Luke 15:1-10** ----- Pastor Kim
 Sermon----- **“Lost But Found”** ----- Pastor Kim
 Intercessory Prayer ----- Together
 Closing Praise----- “Made Me Glad”----- Together
 *Benediction -----Rev. Lee

주일 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입례찬송 ----- “찬양하라 내 영혼아” ----- 다함께
 Opening Hymn Blessed the Lord, O my soul
 *경배와 찬양 ----- 다함께
 Worship & Praise
 *신앙고백 ----- 다함께
 Apostle’s Creed
 *찬송 -----68장(통32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 다함께
 Hymn We Praise Thee, O God, our Redeemer, Creator
 대표기도 ----- 시편 126 ----- 석동훈 집사
 Prayer Psalm 126
 찬양 ----- “하늘의 양식” ----- 세광 찬양대
 Anthem Sekwang Choir
 봉헌기도 ----- 인도자
 Offering Prayer
 성경봉독 ----- **시편 62** ----- 인도자
 Word of God Psalm 62
 인사 및 광고 -----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s
 설교 -----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때”** ----- 이민영 목사
 Sermon
 *찬송 ----- 310장(통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 다함께
 Hymn I Know not Why God’s Wondrous Grace
 *축도 -----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지난 주 주일 말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시편 50

대부분의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 간구, 탄식, 감사와 결단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늘과 땅을 법정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자기 백성을 불러 판결하시는 장면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해 판결하십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율법의 대 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판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법정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판결하신다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판결을 내리실만한 주권자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증인이고, 세계와 온 땅이 그의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고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정의 피고는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증인으로 보는 가운데 자기 백성에 대한 기대와 관심과 판단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오늘 신앙과 삶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이렇게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는지, 서로 어떻게 대하고 사랑하는지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기대 가운데 나온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의 자식을 판단하는 것과 자기 자식을 판단하는 마음은 다른 법입니다.

이미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기에, 제물을 가지고는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또 제사를 드려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그의 백성됨을 증명하려는 것은 이미 우리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서운하게 하는 일입니다. 베푸신 일을 감사하고, 서원을 갚고, 약할 때에는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뭘 더 드려서 하나님 영광을 더하겠습니까?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알아드리는 것,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합니다.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대신, 자식됨을 증명해 아버지의 호의를 얻어내려고 억지로 아버지를 섬긴 큰 아들이 아버지를 결코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아들과 똑같이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 백성된 것을 특권처럼 여기고, 율법을 입에 올리며 자기 의를 쌓기만 하지,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닦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율법을 주신 것도 자기 백성이 자기를 닦도록, 그렇게 공의와 긍휼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남들보다 철저히 율법을 지킨다 해도 결국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옳은 일을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며, 형제를 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그가 찢으면 건질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감사로 제사드리고,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전히 자기 백성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알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입니다. 언약과 사랑의 관계로의 초대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전히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죄를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감사로 영광 돌리고, 옳은 길에서 구원을 받도록 확실한 약속과 기회를 주셨습니다.